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4월27일(금) 금요기도회는 Dreamers Worship 팀을 초청해 학생들과 함께 특별찬양예배로 드립니다.
- **선교부:** 4월 28일(토)에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Paint Day가 있습니다.
 - 시간: 1시-3시
 - 성인: \$25, 부부: \$40, 학생: \$15
- 중고등부는 5월12일(토) 뉴욕/뉴저지 지역 교회들의 배구대회에 참가합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4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홍성철 집사 (시편 23편)
 이번 주 친교: 김현정 권사, 오영숙 집사
 다음 주 친교: 강승연 자매, Judith Rizzio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황인선 사모
 봉헌찬송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롬 8:18-30**-----인도자
 설교(Sermon)-----“**헛되지 않은 수고(2): 소망**”-----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 435장 (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 4편 ----- 최성국 집사
 찬양(Choir) -----“십자가로 가까이”-----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롬 8:18-30**-----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헛되지 않은 수고(2): 소망**”----- 이민영 목사
 *찬송(Hymn) ----- 384장 (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헛되지 않은 수고(1): 믿음 (고전15:51-58; 살전1:3-4; 요20:24-31)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었으니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고전 15:58).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한 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만나 믿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음 주일에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믿는 대상이 진짜여야 합니다. 아무리 굳세고 진정있는 믿음일지라도 헛된 것을 믿으면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사셨고 또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반복된 행위에서 오는 자기 세뇌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주님이 도마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셔서, 도마가 믿기 원하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도마가 믿게 된 것은 자기 생각처럼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갈구하던 확실한 증거를 넘어서는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위엄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다”고 고백한 게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습니다. 주님은 보고 믿은 도마보다 보지 못하고 믿은 우리가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볼 수 없기에 예배함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응답, 궁금해하던 것을 믿어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알았다고 만족할 수 없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응답 받았다고 떠나가지 않고 더 간구합니다. 믿음은 우리 생각으로 동의하는 해답과 우리 마음으로 만족하는 응답보다도 크고 진실합니다. 참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갈망보다 주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도, 정서적인 만족도 아닌 크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 혹은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삽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보다 다른 가르침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 보이고 믿음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따르는 겁니다. 당장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에는 상이 따릅니다(히 11:6). 상 받으려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행위를 했다고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께 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행위를 공로 삼아 상을 요구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과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없는 우리의 미약한 믿음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현존하는 도움이 되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수고에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자리에 나아오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수고를 합니다. 그 공로 때문에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수고와 갈망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믿을만 하고, 맡길만 하고, 수고할만 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